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



무엇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가

프랑크베르츠하흐 지음

소설가 로맹 롤랑은 말했다. “태양이 없을 때 그것을 창조하는 일이 예술가의 역할이다.” 보통의 삶, 개인의 일상에서 창조성을 발휘한다면, 그 또한 예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다.

“창조성을 지켜라-디자인을 위한 심리학”으로 유명한 프랑크 베르츠하흐가 펴낸 ‘무엇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가’는 일상을 창조적 순간들로 경험하는 기술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한마디로 책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새롭게, 자신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잡이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산다. 그러나 창조적인 사람은 불만을 토대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방식에 만족할 수 없어서 그것을 대신할 무언가를 만들고자 창조적 활동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대개는 현실의 불만이 창조적 동인이 되기보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저자는 우리 안에 숨은 불안과 비관주의적 태

도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사실 우리의 일상상은 타율의 왕국이라고 해도 될 만큼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끊임없이 무언가 요구되고 그것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게 삶이다. 이러한 일상에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볼 것을 권한다. 작고 시시해 보이는 것들이 바로 우리 삶의 일부이며, 변화는 그 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창조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혼자 있기”와 “침묵하기”가 그것이다. 혼자 있기와 침묵은 단순히 하루에서 떨어져 지내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의와 집중을 방해하는 나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활동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창조란 자기 삶에서 경험한 것, 자기 안에 담긴 무언가를 세상 밖으로 표출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삶의 예술이 목표로 하는 것 중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머물고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식이다. 항상 지속적으로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언제나 다시금 온전한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즉 혼자 있는 상태를 추구하되 외롭지는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불광출판사·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공지능이 만든 인간의 미래 다각도 분석



로봇은 인간을 지배할 수 있을까?

이종호 지음

인류의 미래는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하기 등 오래 상상하며 열원해온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실에서도 이루어진다.

로봇 역시 인간이 상상한 대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인간이 꿈꿔온 로봇은 어떤 모습인가? 상상 속 로봇은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 이야기에 인간이 만든 인공 날개가 나온다. 뛰어난 기술자 다이달로스는 새를 닮은 날개를 만들고, 이 날개로 하늘을 날았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개발된 ‘인공 로봇’은 인간의 몸에 부착

하는 형태의 로봇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주었다.

한국과학기술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종호 박사가 펴낸 ‘로봇은 인간을 지배할 수 있을까?’는 인공지능이 만든 인간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 책은 일과 신드롬으로 발생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며 다양한 인공지능을 분석한다.

저자는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대체할 직업 분야는 ‘개발에 추가 비용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 현재 높은 급여가 지불되고 있는 업종’이라고 한다. 서류 작성이나 계산 등 일정한 형식으로 이뤄진 업무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우려는 만약 SF영화에서처럼 로봇이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격이 가능한 군사 로봇이 도시를 활보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책은 이처럼 인공지능이 만든 인간의 미래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북카라반·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글로벌 통화 노리는 위안화의 ‘보이지 않는 힘’

위안화의 역할

윌리엄 오버홀트 외 지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미국의 달러가 파운드를 제치고 선두적인 국제통화가 될 거라 예상한 이는 드물었다. 같은 예로, 현재점에서 위안화가 달러에 앞서 세계 금융 시스템을 리드할 거라 예상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그러나 달러가 부상했던 역사적 여정을 보면 위안화의 진로를 예견할 수 있다. 최소한 유로화를 제치고 제2의 준비통화가 될 날이 멀지 않다. 물론 먼 미래의 일이다.

지난 7일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은 더 이상 위안화의 평가 절하에 나서지 않기로 합의했다. 세계 각국과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수출을 늘려 위안화를 평가 절하했다”고 비판해왔다. 중국은 이를 의식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중국의 5월 수출액은 1조 17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2% 성장했고, 평가 절하의 효과를 특별히 보고 있다.

한국의 사정은 어떨까. 중국과 경쟁을

펼치는 한국기업들로서는 위안화 평가 절하가 달갑지 않다. 가격경쟁력에서 중국기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안화 가치 등락에 따른 합리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홍콩의 저명한 경제학자 윌리엄오버홀트·귀난 마·정철편역가 중국과 세계 경제, 금융 시스템의 미래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을 했다. 이들이 펴낸 ‘위안화의 역할’은 위안화의 기축통화 편입이 가져올 기회와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가 추천한 것에서 보듯, 책은 위안화를 매개로 미래 세계 경제를 조망한다.

현재 위안화 시장은 중국정부의 자본 시장 규제 완화에 따라 점점 커지고 있다. 이윤 창출 기회가 증가하면서 세계 기업의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다. 저자들은 위안화가 국제화로 부상하려면 선결 과제들이 많지만 글로벌 통화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저자들은 작금의 위안화 충격은 국제 통화 시스템을 이끌려는 중국의 의도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이들은 “위안화 국제화, 국내 금융 자유화, 자본 계정 개방은 2인3각 경주를 하는 사람처럼 점진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통화와 연결된 세 문제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두를 자유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동유럽에서 유발된 ‘충격요법’ 같은 경제적 재앙을 각오해야 한다.

또 하나는 전제조건을 측면을 고려하



위안화의 급속한 국제화는 세계금융시스템의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21세기 북스 제공>

는 방법이다. 일테면 이런 것이다. 국내 금융 부문이 자유화되고 환율이 변동하는 개방적 자본 계정 하에서 통화가 교환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하나의 과정을 완수하고 다음 과정에 착수할 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물론 여러 장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중국을 마지막 방식을 선택했는데 개혁의 전반적 과정과 일치한다. 세 영역에서 점진적이고 연쇄적이며 신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론 점진주의는 현장 실험을 거쳐 단계를 밟는다는 뜻이지 느리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면 언제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까? 이미 세계적으로 결제 통화, 외국 환 거래 주요 기능에 위안화(RMB) 채택

이 늘어나고 있다. 위안화는 2014년 말 세계 결제에서 이용되는 5대 통화에 진입했다. 그에 반해 준비통화로서의 위안화 이용은 저조한 편이다.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 비중의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 정치적, 재정적인 대변동이 없는 한 수십 년 동안은 제한적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저자들은 위안화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국이 세계 금융 지배 구조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것에 계속 저항한다면 (수년 내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만) 분열이 나타날 수 있다.”

<21세기 북스·1만9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적당히 악하고 적당히 선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비온 뒤

윌리엄 트레버 지음

윌스트리트 저널리스트부터 “영어권 국가에서 그보다 뛰어난 단편작가는 없다”는 평가를 받는 윌리엄 트레버의 소설집 ‘비온 뒤’가 출간됐다. 플리처상 수상작가 겸 라파리히는 트레버의 단편집을 ‘성경처럼 여기며 “그 모음집에 포함될 만한 자격을 갖춘 단편 딱 하나만 쓸 수 있어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모두 12편의 작품이 수록된 소설집 ‘비온 뒤’는 적당히 악하고 적당히 선한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다. 작가는 작중 인물들에 거리를 두되 연민의 시선을 잃지 않는다. 최소한의 단어를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면서도 섬세한 묘사를 이끌어가는 필력은 여타의 찬사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조울사의 아내들’에서는 맹인 조울사의 사별한 아내를 질투하는 현재 아내의 이야기, ‘길버트의 어머니’는 외동아들 사이코패스 살인마로 의심하는 어머니의 고통이, ‘아이의 놀이’는 각자의 불륜을 저지르고 결합한 재혼부부의 두 아이들의 성장담이 다뤄진다.

트레버는 작중 인물들이 처한 난감한 상황과 그때 행위의 옳고 그름을 독자들에게 직접 판단하게 한다.

<한겨레 출판·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만드시 기억해야 할 최소한의 역사 기록



한국사를 지켜라 1-2

김형민 지음

“역사는 그를 무작정 긍정하는 자의 것도, 선불리 부정하는 자의 것도 아니다. 역사 앞에 겸손하고 그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역사는 그 진실을 내어준다. 슬프되 좌절하지 않고 아프되 비루하지 않았던 한국사를 지켜가고 싶다.”

인터넷에서 ‘산하’라는 필명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표현해 오고 있는 역사이야기꾼 김형민이 2015년 불거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지켜보며

만드시 기억해야 할 최소한의 역사는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국사를 지켜라’를 집필했다.

1권은 저자가 그동안 적어왔던 ‘오늘의 역사’ 가운데 독립운동가 관련 글을 고치고 덧붙여 엮고, 2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마지막 10년, 대한민국이 유신공화국이었던 1970년대 풍경을 담은 글들을 고치고 덧붙여 엮었다.

저자는 책에서 서술 퍼펄던 1970년대를 26개의 꼭지에 담았다.

법치국가의 수도 한복판에서 법을 지키고 외지며 분신한 전태일부터 아무도 반대하지 않은 유신 선포, 통일방직 동물사건, 부마항쟁 등 유신공화국의 그림자를 생생하게 펼쳐 보인다.

<푸른역사·각권 1만5000원, 1만35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전남 남가발 프리모

대산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0-3600-9955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 010-3119-6952

새 주인을 찾습니다

매매

아름다운 펜션 카페 영업중!!

- 70~80년된 낫골, 소나무, 단풍나무, 황금공작편백,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688㎡(4,745평), 단층 슬라브 350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C 15분 / 문평.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 010-3119-6952